

### 한국형출혈열 환자의 임상상

서울의대 내과

김연수 · 김근호 · 정윤철  
한진석 · 김성권 · 이정삼

한국형출혈열(KHF)의 원인 바이러스 발견과 혈청학적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형적 임상형 외에 비전형적인 예들이 보고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최근 한국형출혈열의 임상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1986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내과에 입원하여 혈청학적 방법으로 확진된 한국형출혈열 환자 14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임상상을 분석하였다.

1) 143명중 남녀는 각각 109명, 34명으로 남녀비는 3.2:1이었으며, 진단시 이들의 평균 연령은 42.4±14.5(mean±S.D.)세였다.

2) 98명 모두 발열이 있었고 오한, 두통, 안구통, 배부통은 각각 84명, 76명, 38명, 64명이었으며, 안면홍조, 결막출혈, 점상출혈, 자반, 결막출혈이 각각 51명, 68명, 62명, 23명, 19명이었다.

3) 임상경과중 최고 체온은 39.2±0.7°C, 지속기간은 4.2±2.3일이었고, 저혈압기는 24명에서 관찰되었으며, 땀노기에는 66명으로 지속기간은 7.2±3.4일이었다. 이노기의 지속기간은 11.7±5.3일이었고, 최대이노량은 5600±1800 ml/일이었다. 발열기 이후 땀노 및 고질소혈증이 없었던 비전형형은 4명이었으며, 임상경과중 범발성혈관내용고증이 확인된 경우는 35명이었다. 고질소혈증이 있었던 기간중 41명에서 평균 2.7회의 혈액투석을 시행하였다.

4) 합병증은 98명중 73명에서 발생하였고, 고혈압, 빈혈, 감염(비노기계감염, 폐렴, 패혈증), 중추신경계 합병증(경련, 뇌졸중, 혼수)이 각각 45명, 36명, 19명, 11명에서 관찰되었다. 폐부종 및 폐출혈은 6명에서 확인되었고, 3명에서는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났으며,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는 9명으로 모두 호르몬체제의 치환요법이 필요하였다. 이외에 일시적으로 1도 방실전도장애 및 QT간격 연장 증후군, 방실접합부성 부정맥등의 전도장애가 나타났으며, 급성 늑내장도

관찰되었다.

5) WHO 중증도분류기준상 98명중 경중, 중등중, 중증이 각각 67명, 19명, 12명이었고, 빈혈, 감염,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폐출혈, 경련,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중증도가 심했다( $p < 0.05$ ).

6) 143명중 8명(남자 6, 여자 2)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5.6%이었고, 사망시의 병기는 저혈압기, 땀노기, 이노기가 각각 4명, 3명, 1명이었으며, 사망원인은 원발성 쇼크, 패혈증, 뇌졸중이 각각 3명, 4명, 1명이었다. 사망례는 모두 중증상이었으며, 호흡기계 평점(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폐부종, 폐출혈, 폐렴) 및 간평점(SGOT, SGPT)과 각각  $R=0.70, 0.72$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식장애, 경련, 뇌졸중 등 신경계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p < 0.05$ ).

이상에서,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던 한국형출혈열 환자의 74.5%에서 합병증을 나타내었고 사망률은 5.6%였으며, 사망과 임상적 중증도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R=0.71$ ).

### 신증후 출혈열 환자의 이노기에 시행한 신생검 조직 소견

경희의대 내과

손현석 · 안재형 · 이태원  
임 천 규 · 김 명 재

해부병리

양 문 호

신증후 출혈열은 갑작스런 고열, 오한 및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면서 일련의 신증후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본 질환에서 이제까지 보고된 신생검 조직 소견은 과거의 간질성 병변을 중심으로 한 소견에서 최근의 사구체 병변에 대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학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면역 형광 현미경 소견상 면역글로불린의 침착이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신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는 신손상에 신증후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세포 독작용 또는 면역학적 기전이 관여하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신증후 출혈열 환자의 신생검 조직 소견을 규명하기 위